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Desire and Moral Judgment

정윤진* · 이형철* · 김신우*†

YunJin Jung · Hyung-Chul O. Li · ShinWoo Kim†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Abstract

Past experimental research reported that people become stricter in moral judgements when cleanliness-related concepts are activated.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pre-experimental individual differences in cleanliness desire is also related to moral judgment. This research examined whether cleanliness desire in various daily activities is related to diverse types of moral judgments (Study 1), and whether experimentally manipulated physical cleannes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cleanliness desire and moral judgments (Study 2). The results showed reliable relationship between everyday cleanliness desire and moral judgements in that people who were high (or low) in the desire was stricter (or more tolerant) in moral judgments. The relationship was also observed when physical cleanness was manipulate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moral judgments depending on actual physical cleanness.

Key Words: Cleanliness, Moral Judgement, Immorality, Dirtiness

요약

물리적 청결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기존의 실험 연구들은 청결 관련 개념이 활성화될 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 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개인 간 청결 욕구의 차이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이 평상시에 느끼는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이 관련이 있는지(연구 1), 그리고 실험적으로 조작된 물리적 청결 수준이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연구 2)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가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 기준 또한 엄격하였으며 평소 청결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은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온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험적으로 청결 수준을 조작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청결 수준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제어: 청결 욕구, 도덕 판단, 부도덕, 더러움

† 교신저자: 김신우(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조교수)

E-mail : shinwoo.kim@kw.ac.kr

TEL : 02-940-5421

FAX : 02-941-9214

1. 서론

흔히 영화나 드라마, 문학 작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손을 씻거나 몸을 청결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Macbeth>에서 맥베스의 부인은 덩컨 왕을 죽인 후 자신의 손을 광적으로 씻는 행동을 한다. 이는 자신의 도덕적 과오에서 비롯하는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에서는 세례를 통해 정화의 의식을 하기도 하며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죄를 지은 인물이 쏟아지는 빗속에 서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도덕적인 흠결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은 물리적 청결에 대한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청결에 대한 욕구란 물리적, 심리적으로 더럽거나 옳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결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청결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깨끗한 상태를 온전히 보호하려는 욕구 또한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으로 청결 행위와 도덕적 상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절도 등의 범죄 행위 후, 이를 중단하는 경우 흔히 ‘손을 씻었다’는 표현을 쓴다. 또한 품행이나 도덕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도를 닦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는 도덕적 판단과 청결 욕구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물리적인 청결 행위를 통해 청결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더러운 것을 더 멀리 하려는 욕구 또한 존재한다. 똑같은 쓰레기라 할지라도 대청소를 하느라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상태에서는 큰 거리낌 없이 만질 수 있지만, 목욕을 한 직후의 청결한 상태에서는 쓰레기를 만지기 꺼려진다. 마찬가지로 후줄근한 차림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할 때에는 무언가 묻어도 크게 개의치 않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서는 오염될 확률이 높은 행동을 꺼리게 된다. 이처럼 깨끗한 상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청결 욕구는 심리적으로 도덕적이고 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확

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마음의 청결을 위해 물리적 청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도덕적 판단과 물리적 청결이 연합되어 있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Zhong & Liljenquist, 2006; Lee & Schwarz, 2010a; Lee & Schwarz, 2010b). 예를 들어, Zhong과 Liljenquist(2009)는 도덕적 순수성을 위협받았다고 느낀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청결과 관련된 개념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두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윤리적 경험과 비윤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한 뒤 단어 완성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때, 비윤리적 경험을 회상한 집단이 청결과 관련된 단어를 더 많이 만들었다. 또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을 때, 청결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실험에 대한 보상으로 제시된 상품들 중에서도 물티슈와 같이 청결과 관련된 제품을 더 많이 가져갔다. 또한 Zhong 등(2010)은 자기 자신이 청결하다고 느끼게 처치를 받은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자신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고 마약, 낙태 등의 여러 가지 도덕적 이슈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해당 도덕적 이슈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나쁘게 평가하고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Schnall 등(2008)은 주변 환경이 더럽고 역겨운 상황에서 도덕적 판단이 더 엄격해지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발된 역겨움을 청결 관련 개념의 활성화를 통해 해소하였을 때 도덕적 판단의 엄격함이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확인한 도덕과 청결의 연합은 실험적 조작을 통해 청결 수준을 조작하고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결이라는 변인은 실험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가 분명한 변인이기도 하다. 또한 실험적 조작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청결 수준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경향이 있어 다양한 맥락에서의 청결과 다양한 범주의 도덕적 이슈들 간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Zhong 등(2010)은 글쓰기 과제를 통해 청결 상태를

접화하는 것이 도덕적 이슈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참가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청결 욕구의 차이가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설문지를 통해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항을 통해 여러 가지 맥락(예를 들어, 손과 관련된 청결, 입과 관련된 청결 등)에서의 청결 욕구와 도덕적 이슈(타인과 관련된 이슈 자신에 대한 이슈 등)에 대한 판단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청결 행동을 하거나 관련 개념을 미리 접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처럼 실험적 조작을 통하여 청결 수준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알아보았을 경우 일반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설문조사법을 통한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두 변인간의 상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법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개인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개인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청결 욕구를 조사하고 다양한 범주의 도덕적 이슈를 평가하여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연구 1

연구 1에서는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 설문

2.1.1. 설문지

참가자들 개개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청결과 관련된 10가지 설문지 항목과 13가지의 도덕적 이슈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각각의 설문지 문항은 Table 1에 문항 번호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열의 요인은 설문조사가 종료된 후 실시한 요인분석의 결과이며 설문지에 제공하지 않았다.

청결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청결 욕구를 느끼는 다양한 맥락을 반영하고자 자신의 신체와 관련된 청결, 음식의 섭취와 관련된 청결, 외부 환경과 관련된 청결로 크게 나누어 작성하였다. 신체와 관련된 청결의 경우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고 싶은지, 혹은 평소에 청결 유지를 위해 휴대용(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는지 등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적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음식과 관련된 청결은 타인과 음식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결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혹은 식탁 등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지 등 음식 섭취와 관련된 청결 욕구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강의실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공공기물이 얼마나 청결하게 느껴지는지 알아보려고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다. 실제 설문지에서는 참가자들이 연구 목적을 추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생활속 생각에 대한 설문’으로 표기하여 제시하였다.

도덕적 이슈는 Schnall이 사용한 문항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성적인 것,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 환경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성적인 도덕적 이슈에는 낙태, 간통, 성매매 등이 포함되었으며 자신을 해롭게 하는 도덕적 이슈로는 폭식, 약물 남용 등 주로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반대로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경우로는 뇌물, 비속어 사용 등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을 해롭게 하는 도덕적 이슈로는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외부로 무언가 배출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2.1.2. 절차

참가자는 4년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총 100명(Female: 52, Average age = 24.71, SD = 6.03)을 모집하였다. 설문지 문항 순서는 역순으로 제시하거나 청결 도덕 설문지의 순서를 바꾸어 총 네 가지로 설계하였으며 각 순서 조건에 25명씩 참가하였다. 각 설문지는 9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제작되었다(청결 문항 = 1: 전혀 그렇지 않다 5: 보통이다 9: 매우 그렇다 / 도덕 문항 = 1: 전혀 나쁘지 않다 5: 보통이다 9: 매우 나쁘다).

Table 1. Survey questions used in this study. The questions are grouped by factor analysis results

Factors	#	Questions	Total	% of Variance	Cronbach's α
Contact cleanliness (접촉 청결)	5.	I would be reluctant to use a straw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진다.)	3.712	37.122	.694
	6.	When I eat with people, I prefer to eat food on a individual plate. (여럿이서 음식을 먹을 때 접시에 각자 떨어져 먹는 것을 선호한다.)			
	7.	I do not eat the food spilled on table or desk. (먹다가 식탁 혹은 책상에 흘린 음식을 다시 주워 먹지 않는다.)			
Body cleanliness (신체 청결)	2.	I do not lie down on the bed while dressed in a street dress. (외출했던 복장 그대로 침대에 눕지 않는다.)	1.442	14.422	.637
	1.	When I return home after going out, I want to wash my hands.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싶은 생각이 든다.)			
	4.	I usually wash my hands before eating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편이다.)			
Environment cleanliness (환경 청결)	3.	I usually carry a portable wipes. (휴대용 (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다.)	1.174	11.737	.772
	9.	The desk and chair in the library or classroom do not seem clean (도서관, 강의실 등의 책상과 의자가 청결하지 않은 것 같다.)			
	10.	I think the soap in the public toilets are not clean. (공중화장실의 비누가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Sexual morality (성적 도덕)	8.	When I use public transportation, I do not feel the handles clean. (대중교통에서 다른 사람이 잡았던 손잡이가 청결하지 않게 느껴진다.)	4.514	34.726	.780
	2.	Adultery (간통(불륜))			
	1.	Abortion (낙태)			
	3.	Prostitution (성매매)			
Emission morality (배출 도덕)	4.	Promiscuous sexual relations (문란한 성관계)	1.899	14.607	.759
	12.	Urination on the street (노상방뇨)			
	11.	Littering (쓰레기 무단 투기)			
	9.	Bribing (뇌물)			
Self-harm morality (자해 도덕)	8.	Use of slang (비속어 사용)	1.457	11.207	.681
	7.	Binge eating (폭식)			
	6.	Drug abuse (약물의 남용(수면제, 각성제 등))			
Responsibility morality (책임 도덕)	5.	Alcoholism (알코올 중독)	1.207	9.288	.626
	10.	Drunk driving (음주운전)			
	13.	Pet abandonment (애완동물 유기)			

참가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 URL을 클릭하여 Google 드라이브에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먼저 설문지 작성에 드는 예상 소요 시간과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안내를 받고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지가 종료되면 안내 메시지가 뜨고 이후 수정이나 결과 확인은 할 수 없었다.

2.2. 결과

2.2.1. 전체 상관분석

참가자 100명의 설문지 응답 결과를 토대로 청결

문항 평균과 도덕 문항 평균을 상관분석한 결과, 청결 욕구가 도덕적 판단 기준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01, p < .001$). 다시 말해, 청결 욕구가 높은 참가자들은 도덕적 판단 기준 또한 높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내리며, 청결 욕구가 낮은 참가자들은 도덕적으로 더 온화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은 전체 참가자의 청결 점수 평균과 도덕 점수 평균을 산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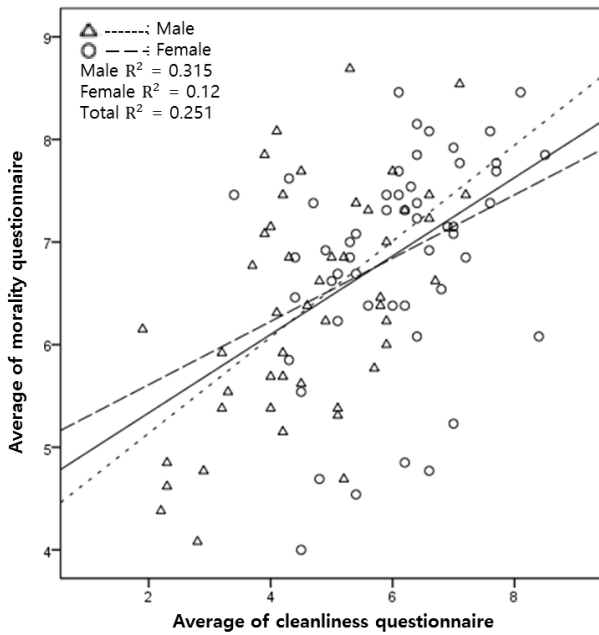


Figure 1. Scatter plot of cleanliness and morality

2.2.2. 요인 분석

상관 분석을 통해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 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특정 맥락의 청결 욕구와 도덕적 이슈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표기의 효율성을 위해 각 문항 번호와 키워드로 각각의 설문지 문항을 대체하였다.

Table 2. Results of cleanliness factor analysis

	Factor		
	1	2	3
5. straw with others	.802	.127	.094
6. individual plate	.758	.204	.266
7. spilled food table	.712	.068	.288
2. street dress bed	.478	.426	-.326
1. going out hands	.109	.822	.150
4. before eating	.245	.775	.070
3. portable wipes	.044	.586	.148
9. library desks	.049	.238	.798
10. public toilets	.297	-.054	.798
8. transportation	.285	.398	.674
Eigenvalue	3.712	1.442	1.174
% of variance	37.122	14.422	11.737

KMO= .773, Bartlett's $\chi^2= 296.464$ ($p < .001$)

Table 3. Results of morality factor analysis

	Factor			
	1	2	3	4
2. Adultery	.802	-.054	.135	.281
1. Abortion	.774	.130	-.099	-.076
3. Prostitution	.766	.111	.247	.085
4. Promiscuous	.568	.067	.551	-.125
12. Urination	-.025	.831	-.049	.230
11. Littering	.082	.817	.207	.175
9. Bribing	.499	.605	.285	.072
8. Use of slang	.420	.509	.380	-.415
7. Binge eating	-.136	.296	.760	-.067
6. Drug abuse	.284	.078	.721	.272
5. Alcoholism	.266	-.035	.647	.448
10. Drunk driving	.045	.146	.066	.837
13. Pet abandonment	.081	.396	.165	.680
Eigenvalue	4.514	1.899	1.457	1.207
% of variance	34.726	14.607	11.207	9.288

KMO= .752, Bartlett's $\chi^2= 527.452$ ($p < .001$)

청결 욕구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다른 사람과 같은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진다’, ‘여럿이서 음식을 먹을 때 접시에 각자 덜어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 ‘먹다가 식탁 혹은 책상에 흘린 음식을 다시 주워 먹지 않는다’와 같이 음식과 관련된 문항과 ‘외출했던 복장 그대로 침대에 눕지 않는다’ 문항이 같은 요인으로 묶였다. 이는 공통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오염을 피하고자 하는 청결 욕구로 볼 수 있다. 또한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편이다’, ‘휴대용(물)티슈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다’ 문항이 두 번째 요인으로 묶였으며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체(특히 손)와 관련된 청결 욕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강의실 등의 책상과 의자가 청결하지 않은 것 같다’, ‘공중화장실의 비누가 청결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에서 다른 사람이 잡았던 손잡이가 청결하지 않게 느껴진다’ 항목이 묶여 주변 환경에 관련된 청결 욕구가 유사한 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이슈에 대한 문항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졌다. 먼저 간통(불륜), 낙태, 성매매, 문란한 성관계가 하나로 묶여 성적인 것으로 묶였으며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뇌물, 비속어 사용이 두 번째 요인으로 묶여 배출과 관련된 도덕적

이슈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자신을 해롭게 하는 도덕적 이슈로 폭식, 약물의 남용(수면제, 각성제 등), 알코올 중독이 묶였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애완동물 유기가 묶여 책임과 관련된 도덕으로 분류하였다.

2.2.3. 요인별 상관분석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한 요인들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범주 간의 상관을 알아보려고 청결 욕구 요인 세 가지와 도덕적 이슈 요인 네 가지의 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 청결 설문과 도덕 설문의 각 요인별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먼저 청결 욕구의 접촉 청결, 환경 청결 요인과 도덕적 이슈의 성적 도덕, 자해 도덕 요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또한 세 가지 청결 요인과 배출 도덕 요인이 모두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었다. 세 가지 청결 요인은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도덕적 이슈 중에서는 배출 도덕 요인만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60, p < .01$, 남: $M = 6.208$ $SD = 1.356$, 여: $M = 6.904$ $SD = 1.249$).

Table 4. Correlation matrix between cleanliness and moral judgment factors

	Contact cleanliness	Body cleanliness	Environment cleanliness
Sexual morality	.292**	.179	.264**
Emission morality	.435***	.429***	.458***
Self-harm morality	.232*	.181	.282**
Responsibility morality	.146	.182	.153

*** $p < .001$ ** $p < .01$ * $p < .05$

2.3. 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가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 기준 또한 엄격하며 청결에 대한 욕구가 낮은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판단이 온화한 것으로 나타났다($r = .501, p < .001$).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청결과 도덕

관련 문항을 관련성 높은 문항끼리 묶어서 살펴보았을 때, 요인에 따라 상관이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덕 요인 중 배출 요인은 모든 청결 요인과 유의미하게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 성별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p < .01$). 이는 전반적인 청결 욕구가 외부의 오염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부터 파생된 오염물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적 도덕 또한 신체적인 접촉 행위가 필수 불가결한 행동으로, 신체적인 청결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다소 보수적이고 성적 행위에 엄격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연구 2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개인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청결에 대한 욕구가 도덕적 판단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맥락에서의 청결 욕구와 다양한 범주의 도덕적 이슈들 간의 관계를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결 욕구가 도덕적 판단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Zhong & Liljenquist, 2006; Lee & Schwarz, 2010a; Lee & Schwarz, 2010b; Schnall et al., 2008; Zhong et al., 2010). 그리고, 실험적으로 청결 수준을 조작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Zhong et al., 2006; Schnall et al., 2008; Zhong et al., 2010).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청결 욕구와 실험적으로 조작한 청결 수준이 도덕적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3.1. 청결 조작과 도덕적 판단

3.1.1. 자극

먼저 청결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가 동전을 만지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과제를 구성하였다. 조작을 위해 동전을 만지도록 과제를 설계한 이유는 물리적으로 손에 무언가가 묻어나는 경우 더러움 조건인 경우에 손을 제대로 닦지 못한 상태에서 설문지

를 작성하기 꺼려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오래된 동전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을 씻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여 오래되고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100원(35개), 50원(25개) 동전을 사용하여 동전 정리 과제를 구성하였다.

모든 참가자들이 동전 정리 과제를 수행한 후 청결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각 조건 별로 다른 방식의 손 닦기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손을 닦는다는 행위에서는 조건 간 차이가 없도록 실험을 설계하였으나 청결 조건의 경우 손 닦기 조작을 위해 향균 핸드위쉬와 물티슈를 사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러움 조건에서는 짙은 파랑색의 녹녹한 수건을 제공하고 손을 닦도록 지시하였다. 더러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수건은 시각적으로 실제보다 더 깨끗하지 않게 느껴지도록 구김과 약간의 얼룩이 있는 상태로 제시되었다.

손 씻기 조작이 끝난 후 도덕적 이슈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도덕적 판단 기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13가지 도덕적 이슈에 대한 설문지는 연구 1에 사용한 설문과 동일하며 문항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였다.

3.1.2. 절차

참가자는 대학생 32명으로 실험참가비 3,000원을 지급받고 실험에 참가하였다(Female: 16, Average age = 24.72, SD = 2.23). 본 연구의 목적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는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연구라고 안내하여 동전을 만진 후 모든 참가자가 손을 닦도록 유도하였다.

동전 정리 과제는 총 네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과제 수행 시간은 약 8분 정도였다.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과제와 순서가 적혀있는 안내문이 정면에 보이도록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100원 짜리 동전의 숫자가 위로 오도록 5개씩 쌓는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50원 짜리 동전으로 첫 번째 과제와 동일한 수행을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네 번째 과제는 각각 100원 짜리 동전과 50원 짜리 동전을 그림이 위로 오도록 10개씩 쌓는 과제였다. 첫 번째 과제를 수

행한 후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정리한 100원 짜리 동전들의 총액을 보고하도록 하여 실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전 정리 과제의 실제 목적을 위해 모든 동전을 양 손으로 골고루 만지도록 하기 위해 매 과제가 끝난 후 두 손으로 동전을 모두 섞은 뒤 처음 동전이 담겨있던 통 안에 집어넣도록 지시하였다. 동전 정리 과제가 끝난 후에는 각 조건 별로 손 닦기를 수행하였다.

두 조건 모두 동전 정리 과제와 손 닦기 처치가 끝난 후에 본인의 손이 0 점부터 100 점 사이로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이후 손 씻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별개로 다른 실험의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고 안내하여 도덕적 이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최대한 솔직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고 안내하였으며 연구자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설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덮개가 있는 서류철 안쪽에 뒤집어서 놓아달라고 요청하였다.

3.2. 결과

3.2.1. 실험 조건 간 차이 검증

연구 2를 통해 수집한 참가자 32명의 데이터에서 조건 간 평균 차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결 조건과 더러움 조건의 집단 간 도덕 설문지 점수 평균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청결 집단: $M = 6.659$ $SD = .706$, 더러움 집단: $M = 6.457$ $SD = 1.104$, $t(30) = .616$, $p = .542$) 도덕적 이슈에 대한 설문의 각 문항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 > .05$). 그러나 참가자들의 손 닦기 조작 이후 물었던 현재 자신의 청결 점수는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청결 조건: $M = 88.06$, $SD = 10.07$, 더러움 조건: $M = 21.56$, $SD = 13.13$, $t(30) = 16.076$ $p < .001$). 따라서 조건 별로 청결 점수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3.2.2. 청결 점수와 조건별 상관분석

t-test에서 조건 간 도덕적 판단 기준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손 닦기 조작 후 청결 점수의 조건 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 상관분석을 통해 조건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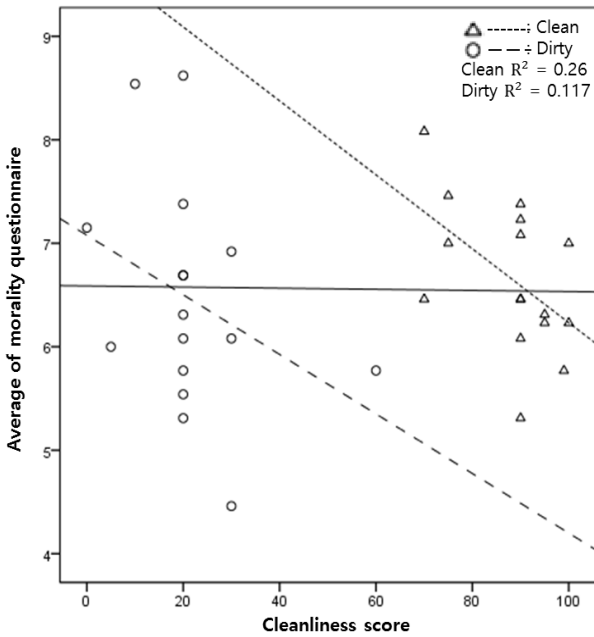


Figure 2. Scatter plot of cleanliness and moral judgment in clean vs. dirty conditions

로 청결 점수와 도덕적 판단 점수의 평균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igure 2는 모든 참가자들의 청결 점수와 도덕적 판단 평균 점수를 나타낸 산포도이며 이를 통해 청결 점수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성을 알아볼 수 있다. 먼저 청결 조건(Δ)의 경우 청결 점수와 도덕 설문지의 평균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었다($r = -.510 p < .05$). 이는 청결 조건의 참가자들 중 손을 깨끗이 닦은 후에도 상대적으로 청결 점수를 낮게 매긴 참가자들이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리며 손을 닦은 후 청결에 대한 점수를 높게 매긴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온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청결 조건의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청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청결 욕구에 따라 자신의 청결 점수를 다르게 평가하였으며 도덕적 판단에서도 이러한 영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러움 조건(\circ)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r = -.342 p > .05$).

연구 1에서 일상 속의 청결 욕구와 도덕적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양의 상관을 보인 것과 연구 2에서 참가자들의 청결 점수와 도덕적 판단이 음의 상관을 보인 결과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

니다. 연구 1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청결 욕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청결 점수가 높은 참가자가 도덕적으로도 엄격한 평가를 내린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연구 2에서의 청결 점수는 동전만지기 과제와 손 씻기 처치 이후에 본인의 손이 몇 점 정도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얻은 것이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가 높은 참가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2의 청결 점수가 낮을수록 청결 점수가 높은, 다시 말해 연구 1의 설문조사에서 청결 점수가 높았던 참가자들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에서 상관 부호가 반대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조건 내에서 성별에 따른 도덕적 판단 설문지의 평균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문항 별로 점수를 살펴봐도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청결 욕구의 개인차(청결 점수)만은 유의미하게 도덕적 판단과 상관이 있었다.

4. 종합논의

물리적 청결과 도덕적 판단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Zhong & Liljenquist, 2006; Lee & Schwarz, 2010a; Lee & Schwarz, 2010b; Schnall et al., 2008; Zhong et al., 2010). 대부분의 경우 실험적으로 청결 수준을 조작하거나 청결과 관련된 개념을 점화한 뒤 사회적, 도덕적 이슈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청결과 관련된 개념이 활성화될 경우, 도덕적으로 보다 엄격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청결 욕구 차이가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작된 청결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평상시에 느끼는 청결 욕구가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연구 1), 그리고 실험적으로 조작된 청결 수준에 따라 청결 욕구가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연구 2)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다양한 맥락에서의 청결 욕구와 여러 가지 범주의 도덕적 이슈에 대하여 묻고 이를 요인별로 묶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가 높을수록 도덕적 판단 기준 또한 엄격하였으며 평소 청결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은 참가자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온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묶인 문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외부와의 접촉과 관련된 청결 문항들끼리 묶이거나 성적인 것과 관련된 도덕적 이슈 문항들이 서로 묶여 다양한 종류의 청결 욕구나 도덕적 이슈들이 맥락에 따라 특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별 상관분석에서 도덕 요인 중 배출 요인은 모든 청결 요인과 유의미하게 강한 상관을 보였으며($p < .001$) 성별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 = .260, p < .01$). 이는 노상방뇨와 같은 행위가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과 연관이 큰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노상방뇨를 도덕적으로 더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r = .404, p < .001$). 성적 도덕과 접촉 청결의 유의미한 상관 또한 성적인 행위들이 신체적 접촉을 필수적으로 동반한다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알아본 청결 욕구와 실험적으로 조작된 청결 수준이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t -test 결과, 청결 조건과 더러움 조건의 도덕적 판단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청결 조건에서 참가자들이 손 닦기 조작 이후 보고한 주관적인 청결 점수와 도덕적 평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는 실험적으로 같은 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청결 욕구의 개인 간 차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평소 청결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손을 씻은 직후에도 자신의 청결 상태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청결 점수를 매기게 되고, 이는 도덕적 판단과도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더러움 조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참가자를 좀 더 모집한다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각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조건 간 도덕적

판단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2의 결과는 연구 1에서 확인하였듯,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청결 욕구의 차이가 도덕적 판단에서의 차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달리 연구 2에서 도덕적 판단의 조건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동전을 만지는 행위와 도덕적 판단 설문의 개념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Lee와 Schwarz(2011)는 직장 동료에게 음성 메일로 거짓말을 한 참가자는 손 세정제보다 구강청결제를 선호하였고, 이메일로 타이핑을 하여 거짓말을 한 참가자들은 구강청결제보다 손 세정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매개로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신체 부위와 관련된 청결 욕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청결 욕구와 도덕적 행위가 같은 범주에 속할 때 보다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손을 사용한 동전 정리 과정을 통해 특정 부위(손)의 물리적 더러움을 유발하였던 연구 2의 경우, 같은 신체 부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덕적 이슈(예를 들어 도둑질, 폭행 등)를 평가하게 하였을 때 유의미한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행동이나 맥락에 속하는 도덕적 이슈들과 같은 맥락을 반영하는 청결 욕구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 필요하다. 또한 물리적 청결 외에도 심리적 청결 수준을 점화하거나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청결 수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청결 욕구를 반영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자극 특정한 청결과 도덕적 판단의 연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응용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청결 욕구와 도덕적 판단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인과적임을 확인하거나 역으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청결 욕구의 점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 도덕적 교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유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관련

해서도 도덕적 판단 기준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배심원을 선발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청결 욕구를 검증하는 것 또한 적용할 법 한 분야이다. 이외에도 보다 높은 도덕적 판단 기준을 요구하는 교육 분야나 마케팅 분야에서 브랜드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높은 청결 수준이 야기하는 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Schnall, S., Haidt, J., Clore, G. L., & Jordan, A. H. (2008).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8), 1096-1109.
- Zhong, C. B. & Liljenquist, K. (2006). Washing away your sins: Threatened morality and physical cleansing. *Science, 313*(5792), 1451-1452.
- Zhong, C. B., Strejcek, B., & Sivanathan N. (2010). A clean self can render harsh moral judg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5), 859-862.
- Schnall, S., Benton, J., & Harvey, S. (2008). With a clean con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19*(12), 1219-1222.
- Lee, S. W. S. & Schwarz, N. (2010a). Washing away postdecisional dissonance. *Science, 328*(5979), 709.
- Lee, S. W. S. & Schwarz, N. (2010b). Dirty hands and dirty mouths: Embodiment of the moral-purity metaphor is specific to the motor modality involved in moral trans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21*(10), 1423-1425.
- Lee, S. W. S. & Schwarz, N. (2011). Wiping the slate clean: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physical cleansing. *Psychological Science, 20*(5), 307-311.
- Lee, S. R., Lee, W. P., Kim, K. U., Youm, J. K., & Sohn, Y. W. (2013). Power affects emotional awareness:

The moderating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goal-relevance.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6*(4), 433-444.

- Chung, E. K., Lee, J. E., & Sohn, Y. W. (2010). The effect of regulatory fit on product design and morality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3*(4), 669-676.
- Jung, J. Y. & Han, S. H. (2011). The review of neural basis for prosocial moral motivation and moral decision-making.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4*(4), 555-570.

원고접수: 2015.08.12

수정접수: 2015.09.22

게재확정: 2015.10.13